

2019 독서일기

공짜로 즐기는 세상

free2world.tistory.com

0102<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로버트 H. 프랭크)

자기 성취에 대해 너무 많은 공적을 주장하는 사람은 팀원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성공에 행운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0104 <열두 발자국> 정재승

- 통상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 몰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생각에 오래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기도 힘들뿐더러, 오히려 두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른 과제를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0111 <보고서의 법칙> (백승권)

- 업무 글쓰기는 '소통적 글쓰기'입니다. 소통적 글쓰기는 자신의 글에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해를, 적극적으로는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표현적 글쓰기의 중심이 '나'라면 소통적 글쓰기의 중심은 '독자'입니다.

0114 <본격 한중일 세계사> (굽시니스트)

- 짬뽕이 던진 질문
- 19세기 말, 어째서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에 많았을까?
- 왜 하필 나가사키였을까?
- 화교 네트워크는 어떻게 조선까지 뻗었을까?

0116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 - 소노 아야코의 계로록>

-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기를 것
-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이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 교제 범위나 매너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 것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직업적으로 해줄 사람을 선택할 것
- '돈이면 다'라는 생각은 천박한 생각

0117 <당선, 합격, 계급>(장강명)

- 다른 작가나 명사들이 같은 코너에서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도 살피게 된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 '아, 이 책 읽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때보다는 '아, 저 사람이 자기 취향 고상하다고 자랑하고 싶었구나.'라고 느낀 적이 더 잦았다.

0124 <검사내전> (김웅)

- 우리나라 정치꾼은 조직폭력배와 유사하다. 혼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늘 떼로 몰려 다니는데, 고향이나 출신지에 따라 모여며 주로 검은 차나 승합차를 타고 다닌다. 조직의 이름은 주로 모이는 곳이나 오야지가 사는 동네, 그게 아니면 오야지의 이름이나 별칭을 따서 만든다. 범죄를 저지르면 늘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아랫사람이 몰래 한 짓이라고 변명하는 것도 조폭과 다를 바 없다.

0128 <분노의 시대> (판카지 미슈라)

- 자존심과 이기심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법이다. 이기심은 변덕스런 마음에 기생하며 타자에 대한 무력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반감까지 키워 간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마음에,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공격적인 충동으로 이기심이 변질될 수 있다.

0131 <포기하는 용기> (이승욱)

- '나는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느라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찾아야 지금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수혈받아 채우려는 욕구입니다.

0207 <잘돼가? 무엇이든> (이경미)

- 쓰레기를 쓰겠어!
- 라고 결심하니 써지긴 써진다.
- 매일 다짐해야겠다.
- 쓰레기를 쓰겠어!

0208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 (임세원)

- 학교에서 왕따인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명의 친구다.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0211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0213<초등 1,2학년 처음 공부> (윤묘진)

-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일과 놀이를 구분합니다. 놀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일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의무감을 따릅니다. 반면 놀이를 선호하는 아이는 당장 즐거운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가장 훌륭한 자세는 해야 할 일을 놀이로 즐기는 자세입니다.

0215 <글쓰기 수업> (최옥정)

-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그 잔잔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록하는 것이 글이다. 나의 육체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글을 통해 내 육체가 지나간 길을 적어서 남긴다.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셈이다. 육체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을 영혼은 낚아 올린다

0218<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 자립 공존 연대를 위한 실험> (장상미)

-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가지였다. '이 소중한 기회를 가장 잘 살릴 방법' 따위를 아예 생각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밟고 있던 땅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원치 않는 일을 버리고 원하는 일을 찾아 한 걸음씩 나가보기.
- 어쩌면 사무소

0220<뉴스와 거짓말> (정철운)

- 대다수 언론인이 '기레기'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보의 역사'다. (...) '기레기 저널리즘'은 오보의 시대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극우의 가짜 뉴스로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득세는 그동안 실패를 반복해온 저널리즘이 자초한 일이다.

0225 <비커밍> (미셸 오바마)

- 어머니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자신이 우리를 어른으로 키웠다는 확신이 조용하고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결정은 자신이 내릴 일이었다. 오빠와 내 인생은 오빠와 내 것이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늘 그럴 터였다.

0227<재능과 창의성이란 유령을 찾아서> (강창래)

- 창의성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전수받거나 습득하는 것'이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스승과 함께 직접 부대끼면서 배우는 방법, 강의를 듣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이다.
- 인류는 그게 무엇이든 중요한 것들은 책을 통해 그 비법을 내리물림해왔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배웠고 현실에 적용하면서 책 속에 담긴 대가의 수준을 넘어섰다.

0228<중쇄 미정> (가와사키 쇼헤이)

- <중쇄를 찍자!>는 초대형 출판사의 시점으로 한정된 만화.
- 중소형 출판사의 모습은 어떨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편집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을까? 현재의 출판 불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수십만 부 베스트셀러와는 거리가 먼 출판사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편집자의 시점으로 출판업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0304 <일하는 마음> (제현주)

- 대개 배움의 열쇠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명료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 즉,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배움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실패의 보증수표"
-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방법'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307<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어를 쓰는 작가들처럼
은 프랑스어로 글을 결코 쓰지 못하리라는 사실
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쓸 것이다.

이 언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운명에 의해,
우연에 의해, 상황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언어
다.

프랑스어로 쓰는 것, 그것은 나에게 강제된 일이
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한 문맹의 도전.

0314<DP : 개의 날>(김보통)

-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사리판 같은 소속 헌병대를 뒤로 하고, 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다 탈영을 한 다른 부대의 누군가를 찾으러 다녔다. 기묘한 경험이었다.
- 경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시절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 어렵게 꺼내놓는 고백이다.

0315<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피터 플래밍)

- 한때 '국가'와 '시민 사회'는 대중의 자치에 기반을 둔 공공의 수호자라고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행히도 오늘날 그 두 가지 모두 공공의 적을 자처한다. 현대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기반을 둔 이기적이고 잔혹한 개인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리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0318 <태도의 말들> (엄지혜)

-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하고 싶어서 그들의 태도를 읽는다. 문제는 존중이니까.
- '자기 인생이 재미있어지면 아이에 대한 고민은 줄어든다.
-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0320 <아내 가뭄> (애너벨 크랩)

-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이 가사 노동을 절대로, 죽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기혼 부부의 출산율은 1.9명으로 두 명을 육박한다.) 대한민국에는 결혼한 여성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전무하다.’
- (정희진)

0321 <메모독서법> (신정철)

- '온라인 게임, 스윙 댄스, 사진, 와인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다가 최종적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에 정착했다. 책 읽기와 글쓰기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0325 <고민이 고민입니다> (하지현)

- '눈앞에 다가온 어떤 큰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 조바심이 '치열한 고민'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민 없는 나날'에서 있다고 선언하고 싶다. 현실 속에 다가온 작고 구체적인 일들, 고민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일들을 하나씩 클리어해나가면서 뚜벅뚜벅 내 길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특별 고민이 없습니다'라고.'

0327<걷는 사람 하정우>(하정우)

-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쪽 정도 책 읽을 시간, 삼십 분가량 걸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0329 <포노 사피언스> (최재봉)

- "스마트폰은 앞으로 필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SNS는 이제 기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방송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란다. 어려서부터 인기 있는 게임은 좀 배워두고 방송도 볼 줄 알아야 한다."

0401 <유머니즘> (김찬호)

- 내가 나름 관찰은 유머를 구사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지? 말솜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웃기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다.

0405<배우면 나와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권우)

- 포드주의 체제에서는 표준화된 공부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탈포드주의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가 시켜 주는 표준화된 공부와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독서인 셈이다.

0408<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이정모)

- 남보다 원고를 쓰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역사에 남을 불후의 명작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글은 콘텐츠와 구성, 문장으로 이뤄지는데 문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 한계가 있지만 구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보통 새벽에 글을 쓰는데 딱 1시간 30분 안에 씁니다. 그 후에 마감 시간이 되기 전에 다시 꺼내 읽으면서 한번 퇴고한 뒤 보내지요.

0415<하루 1시간 독서습관> (황준연)

-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재미있다. 재미는 모든 일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베스트셀러여서, 혹은 많은 사람이 추천해서 샀는데 아무런 감동과 재미가 없는 책을 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책의 내용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책과 지금의 내가 맞지 않는 책이기 때문이다.

0418<SF는 인류종말에 반대합니다> (김보영, 박상준)

- 로봇이야말로 부처라는 생각은 요새 불교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런 설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늘 운전자에게 정확한 길을 지시하지만 운전자는 말을 듣지 않죠. 하지만 아무리 운전자가 말을 듣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안내해요.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0419<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 "살아있는 순간은 다 배워야 할 때다.
- 오늘을 살려면, 오늘이 즐거워야 한다.
- 오늘이 즐거우려면, 오늘이 새로워야 한다.
- 오늘이 새로우려면, 어제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아야 한다.
- 즉,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매일 배워야 한다."

0422 <쾌락 독서> (문유석)

- 독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 쉬운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대학가의 조급함은 정답을 정해놓고는 신입생들을 그곳으로 빨리 이끌려 했다. 그것은 독서가 아니라 학습이다. 독서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스스로 길을 찾는 행위지 누군가에 의해 목적지로 끌려가는 행위가 아니다.

0424<개의 힘> (돈 원슬로)

- 남자는 현재에 살아.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눕지. 남자는 다음 끼니도, 다음 술도, 다음 잠자리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지금' 행복한 거지. 여자는 내일을 살아. 이 우둔한 아일랜드 놈아. 좀 알아둬. 여자는 늘 동지를 짓고 있어. 하는 일마다 실제로 동지를 짓기 위한 나뭇가지와 잎과 흙을 모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동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여자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야. 동지는 아기를 위한 것이지.

0425<준페이, 다시 생각해!> (오쿠다 히데오)

- 21세의 준페이 군이 앞으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히치하이크로 세계 일주. 자전거로 세계 일주. 도보로 일본 일주. 선박 면허 따서 태평양 횡단. 등산가가 돼서 세계 3대 봉우리 등정. 권투 도장에 다녀서 프로가 되어 세계 챔피언 타이틀 따기. 작익 활동가가 되어 혁명을 일으킨다. 책을 많이 읽어 작가가 된다.

0429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 (서민)

- 대한민국은 의료 수준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싼 의료천국이 됐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간다. 당연히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넘는다. 그럼에도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다.

0502 <남미 히피 로드> (노동효)

- 삶은 곧 축제다.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권력의 앞잡이는 힘이 세다. 그들을 두들겨 패보아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0503<백만장자 메신저> (브렌든 버처드)

-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인생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노라 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평생 성장하는 메신저가 되는 방법을 담고 있다.

0507<하우투 워라밸> (안성민)

- 워라밸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나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조만간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워라밸을 실천하라고 등 떠미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워라밸의 핵심은 명확하고 불변하다. 워라밸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0510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유호현)

- 위계조직은 맨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래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빠르게 따른다.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체제를 위계조직과 대비되는 '역할조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위계조직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집중되어 그의 역량에 의해 회사 전체가 좌우되지만, 역할조직은 각 역할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일에 책임지며 일을 해나간다.

0513<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닌)

- 류비셰프는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우 세세한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벼운 책을 읽거나 외국어 학습을 하였다. 영어도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독학했다.
- 장기간의 출장이 될 경우에는 출장지에 미리 우편으로 책을 부쳤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기 때 분야처럼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만 책을 읽는다. 머리가 피곤해지면 가벼운 소설류를 본다.

0522<기분이 없는 기분> (구정인 만화)

- '사실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없었지만, 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0529<무너지는 제국> (존 스칼지)

- 키바는 경탄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후마 라고스는 언제나 감히 거슬러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고, 키바는 오랫동안 그런 어머니가 논쟁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부모를 올려다보며 '어른이 되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0531 <숨> (테드 창)

- 탐험자여,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에 대해 묵상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가 내게는 있다고 느낀다. 지금 이 글을 각인하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묵상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다.

0603 <비생산적인 생산의 시간> (김보라)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다 불안한데
왜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아요?"

0604<한자의 탄생> (탕누어)

- '직업 독자 professional reader'를 자처하면서 열독과 열독 관련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용강제에 있는 단골 카페에 출근하여 커피 향기 속에서 오후 다섯 시까지 계속 책 읽기와 글쓰기로 하루를 보낸다.
- 모든 사람들이 똑같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0610 <습관 홈트> (이범용)

- 작은 습관 실천 프로젝트의 핵심
 - 매일 하기에 부담 없는 사소한 습관
- 3개 선정
- 총 소요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게,
 - 잠들기 전까지 강제로 실행
 - SNS 공유

0612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4가지
- 분명하게 만들어라.
-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 하기 쉽게 만들어라.
-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0614<쓰기의 말들> (은유)

- '글쓰기에 투신할 최소 시간 확보하기. 글을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일상의 구조 조정을 권한다.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드라마도 보고 잠도 푹 자고 글도 쓰기는 웬만해선 어렵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다.'

0618<코끼리와 벼룩> (찰스 핸디)

- '남보다 낮기보다 다르게 되자.'
- 진정한 혁신은 해당 산업 혹은 회사 바깥에서 온다. 회사 내부에서 오는 것은 친숙한 것의 변형일 뿐,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통찰이 남보다 낮기보다는 다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0621<다시, 책으로> (매리언 울프)

-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늑대들은 그 사람의 젖을 먹고살면서 늘 전쟁을 벌이지. 첫 번째 늑대는 아주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데다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다. 두 번째 늑대는 평화를 좋아하고,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지." 어린 소년은 걱정스레 묻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젖을 주는 늑대란다."

0625<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존 헤네시)

- 외부의 봉사 요청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터를 이용했다.
- - 해당 조직과 그들의 활동은 얼마나 중요한가
- - 내가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봉사인가
- - 이 봉사 기회는 나의 학습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인가

0627<한자와 나오키>(이케이도 준)

- 부당한 갑질은 참지 않는다.
- 부정한 비리는 밝혀내고야 만다.
- 싸움을 걸어온 자는 끝까지 무릎을 꿇린다.

0705<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까> (정경미)

- 부탁은 누구든, 언제나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절을 전제하지 않은 부탁은 무늬만 부탁일 뿐 강요이고 폭력이다.
- 엄마가 아이에게 “수저 좀 놓아줄래?”라고 말했을 때 “저 공룡 만들기 해야 해요”라고 답했다고 하자. 만약 “알았어. 다 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이야기해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부탁이다.
- 그런데 “엄마가 밥 먹을 땐 자기 수저는 스스로 놓아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라고 말한다면 이건 부탁이 아닌 강요다.

0708<산 자들> (장강명)

- 저는 가게 망할지 안 망할지는 그냥 다 운인 거 같고요, 가게 문을 몇 시에 닫느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느냐, 이걸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 (현수동 빵집 삼국지)

0710 <쇠퇴하는 아저씨 사회의 처방전> (야마구치 슈)

- 변화가 격렬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오래 살아남을 지식과 정보를 취하고 싶다면 그 지식이나 정보가 활용된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그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 지식이나 정보의 유효 기간은 점점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고전으로 대표되는 교양적 지성이 더욱 요구된다.

0715<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 인생의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난 할머니, 유튜브 스타로 인생 역전하다.
- 할머니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한 손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평생 직업을 얻다.
-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0719 <플라이백> (박창진)

- 흑자는 내게 약자를 위한 보호막조차 없는 사회에서 왜 굳이 이 처절하고, 외롭고, 질게 뺏힌 싸움에 나섰냐고 묻는다. 내가 아무리 투사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자고 외친들 무엇이 바뀌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다"고.

0722<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드는 법> (이근후)

-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 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이다.

0723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나요? 입시에 성공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책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영어학원 때문에 책을 빼앗지 말고, 수학 문제 때문에 독서를 미루지 마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독서를 제일 앞자리에 두세요. 책을 읽을 여유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0729<엄마는 페미니스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너는 여자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
- '너는 여자니까.'는 그 무엇에 대한 이유도 될 수 없어. 절대로.
- 한 개인으로서 그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봐 줘. 여자애는 어때야 한다는 잣대로 재지 말고. 그 아이가 가장 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재어 줘.'

0805 <공부의 미래> (구본권)

-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 -프랜시스 베이컨
- 책읽기, 토론,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0807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

- 52
- 이루지 못한 꿈도 많지만...
- 53
- 괜찮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0809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 우리는 세상을 오해하고 있고,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다.
- 책에 나오는 10가지 본능을 이해하고 통제할 때, 낙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땐, 가장 긍정적인 경우를 예상하자.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0812<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김성효)

- 아이가 글자를 아니까 어려운 내용도 곧잘 이해하겠지 생각하고 어려운 책을 읽어주면 안 됩니다. 문장 구조가 쉽고 어휘가 간결한 책이 좋습니다.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읽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0814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하종강)

-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0816 <진이 지니> (정유정)

-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0819 <아메리카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당신이 겪은 인종 차별을 흑인이 아닌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불평해선 안 된다. 용서하듯 말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유머로 승화해라. 무엇보다도 화를 내선 안 된다. 미국인들은 흑인이 인종 차별에 대해 화를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를 내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

0821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 흠어진 사고의 기록을 모아놓으면 공통의 문제점이 보인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반 적응 시스템이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 조직의 최약자인 그들에게 할당됐다는 것,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공적으로 문제 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0823<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0826<나를 읽기 싫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정민, 이윤경)

- 말하기도, 듣기도, 작문도 아닌 읽기, 즉 원서 리딩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원서 한 권과 사전만 있으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따로 시간을 내 강좌나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애플을 깔고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 “읽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 또한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0830 <리더는 하루에 백 번 싸운다> (조우성)

- 천하에는 확실한 이치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지혜가 있더라도 공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둘째, 힘이 있더라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셋째, 강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형세에 따라 얻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일에 따라 이룰 수 없는 것도 있다.

0902 <리케> (마이크 비킹)

- 일등석을 지나야 자기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반석 승객이 기내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았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0904 <진화한 마음> (전중환)

- 누군가에게 벌어진 사적인 일을 남에게 입소문을 통해 알릴 때도, 특히 나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파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진화심리학자 프랜시스 맥앤드루는 잠재적인 경쟁상대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잘 전파됨을 발견하였다.

0906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장강명)

- 수학자 조지 단치히는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을 때 강의 시간에 지각했다가 칠판에 적힌 문제가 숙제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끙끙대며 풀었다. 이번 숙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그는 '숙제'를 며칠 만에 풀어서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는 그때까지 통계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라며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이었다. 단치히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거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

0909<올 어바웃 해피니스> (김아리)

- '1장, 행복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 2장, 가족과의 관계가 힘든가요.'
- 3장, 나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세요.'

0916 <빌트, 우리가 지어 올린 모든 것들의 과학> (로마 아그라왈)

-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축구 경기장 크기에 비유하면, 지표면에 있는 담수호의 크기는 우리 집 소파에 있는 쿠션만 할 것이고 강의 면적은 찻잔 받침 정도가 될 것이다.

0923<그해, 여름 손님>
(안드레 애치먼)

- "넌 혼자 있는 게 좋아?"
- "아뇨.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그걸 견디는 법을 배웠죠."

1002<갤러리 북 - 빈센트 반 고흐2> (김영숙)

- 말하자면 그는 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울고 싶은 혹은 울고 있는 '마음'의 흔적을 그린 것이다. 빈센트의 그림은 밖에 있는 풍경이 내 눈으로 (im) 들어와 찍히는 (press) 모습을 담은 인상주의 (impressionism)를 벗어나, 내 안의 심정들이 밖으로 (ex) 나가 풍경과 사물들에 닿아 찍힌 (press) 색들을 담아 그리는 표현주의 (expressionism)의 선구자가 되었다.

1004<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김금희)

- "너는 가끔 잊는 것 같아. 너가 되게 운이 좋은 아이라는 것."
- "내가 뭐가 운이 좋니? 운이 좋으면 이렇게 몇 년을 임용고시를 못 붙겠어?"
- "그러니까 그 못 붙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는 거야."

1011 <그림 속에 너를 숨겨 놓았다> (김미경)

- 그림 좋아하는 마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부러운 마음,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소질인 것 같아요.

1014 <그놈의 소속감>(김응준)

- 글을 쓰는 동안 찾은 가장 큰 즐거움이라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방에 앉아 탐험하듯 책을 읽으며 창의적으로 글을 생산해내는 시간에 행복을 느낀다. 누군가의 간섭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다.

1017 <준이오빠> (김금숙 만화)

- 특수교육 선생님은 준이 오빠가 스트레스로 간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 "그럼 준이도 수영을 시켜야 하나요?"
- 그때 한참 발달장애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이 방송에 많이 나왔다.
- "아니요. 준이는 소리에 예민하니까 풍물을 시켜 보세요."

1018<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

- “우리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업, 나의 소명을 발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1021<다크호스>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

- 다크호스 프로젝트에서 만난 대가들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들이 우수성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충족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아니다. 충족감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우수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023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우천)

-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 둘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 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 자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셋째, 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다.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 있을 뿐이다.

1024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영희)

- 짝사랑이야말로 젊음의 특권, 아니 의무다.
-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고, 슬픈 것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노하지 않으며, 귀중한 것을 보고도 탐내지 않는 삶은 허망한 것이리라.

1025<아무튼, 스릴러> (이다혜)

- <빅 픽처>의 더글라스 케네디,
- <스노우맨>의 요 네스뵈,
- <7년의 밤>의 정유정,
- <블랙 에코>의 마이클 코넬리,
- <추적자>의 리 차일드

1028 <목격자는 피곤해> (살레인 해리스)

- 아이 낳다 죽은 여자, 소아마비 걸린 여자, Rh 인자를 보유한 아기, 톱질하다 손에 입은 상처가 썩은 남자..... 묘지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보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상상할 때 이런 면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때는 자신들이 현대의 병폐라고 여기는 것들-낙태, 동성애, 텔레비전, 이혼-이 없었다고만 보았다.

1030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 (공병호)

- '위징은 군주가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를 '십사구덕'이라 불리는 훈계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다. 때로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며 탐욕스러운 자신을 경계하라"

1101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김보통)

- 대단할 것 없지만
- 위로가 되는 맛

1106 <이토록 고고한 연예>(김탁환)

- 산대놀이에선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구경꾼이 일제히 함께 환호한다. 소설은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각자의 골방에 틀어박힌 수천 혹은 수만 명의 독자가 문장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울고 웃으며 각자의 삶을 뜨겁게 뒤돌아보는 것이다.

1107 <독서모임 꾸리는 법> (원하나)

- 독서모임에 필요한 회원은 최소 세 명, 가장 적당한 수는 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너무 적으면 나눌 이야기가 적어 모임이 빈약해지고, 반대로 많으면 산만해집니다. 일곱 명 정도 모였을 때 모든 회원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 내용도 적당히 풍성해집니다.

1108 <산만한 사람을 위한 공부법> (김응준)

- '수험 생활에 돌입하며 나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책상 앞에 앉아 있기로. 그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했다. 수험생이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단 한 가지 일조차 해내지 못할 바엔 수험 생활을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것 말고는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하든 스마트폰을 만지든 가끔 친구를 만나든 신경 쓰지 않았다.'

1111 <쓸 만한 인간> (박정민)

-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럴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있어서는 관대한 시각을 갖기가 대부분 어렵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레 틈을 찾고 흠을 찾는다.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보이기 마련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도 모르게 '이건 이래서 좋다.'보다 '이건 이래서 별로다.'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1113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데는 당근도 채찍도 효과가 없다. 다만 자유로운 도전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사람이 주저 없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은 당근을 원해서도 채찍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114<사기병> (윤지희)

- 가끔 힘 빠지게 했던 말들
- 신앙 전도
- "위암은 잘 낫는데."
- (나보다 중증인 분이 해 주면 좋다.)
- "억지로라도 먹고 힘내야지."
- (억지로도 못 먹는데...)
- "잘 지내고 있지?"
- (못 지내는데...)
- "요즘 암은 별거 아니래."
- (내겐 큰일인데...)
- "몇 기인지가 뭐가 중요해."
- (많이 중요한데...)

1118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 우리 모두의 꿈은 자기 나름의 관점에 따른 최고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꿈이자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다. 이제 더는 평균의 시대가 강요하는 속박에 제한당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중요시함으로써 평균주의의 독재에서 해방돼야 한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으며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이다.

1120 <작가특보 : 뭐라고? 마감하느 라 안 들렸어> (도대체 글 그림)

- '걷기'가 소재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라면, '먹기'는 약간 체념에 가깝습니다. '아
무 생각도 못하고 시간만 죽일 바에는 맛있
는 거라도 먹자.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아지
니까'라는 마음인 셈이죠.

1122 <작가특보: 삶에 지칠 때 작가가 버티는 법> (곽재식)

- 쓰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항상 메모하자,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충 다 써서 마무리지어 놓고 나중에 고치자,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맞춰서 다 쓰려고 노력하자, 글을 쓰는 도중에 백업을 잘하자, 등등.

1125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한재우)

-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이 충분한 때는 오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에게 할 일은 밀려들지 않는다. 일이 있는 사람에게 어차피 시간은 늘 빠듯하므로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1127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났다> (김병철, 안선희)

- Q: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 A: 일도 일이지만 회식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원래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인데 회식 때 간혹 술 마시는 걸 강요하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상사가 "술을 안 마실 거면 퇴사해!"라고 하기에, 그 다음날 사표를 냈어요."

1129 <페인트> (이희영)

- 내 안에도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와 놀아 주는 일이 나에게겐 글쓰기다. 부모가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닐까. 자신이 바라는 아이로 만들려는 욕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는 마음이 먼저다. 부모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와 함께 놀고 즐기면 된다.

1202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 노동시장에서 임금 불평등이 나타나는 세 요인은, 첫째 개별 노동자가 속해 있는 기업 조직이 대규모인가 아닌가, 둘째 고용 지위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셋째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는가 여부다.

1204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 (노신임)

-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 단 한 명에게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이 지구에 사는 누군가는 분명 나처럼 치매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곁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05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구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풀이보다 “주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실천하는 게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1206<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 신기한 것은 나무가 제 자식 키우는 법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육아 원칙은 하나, '최대한 멀리 떼어 놓기'다. 자신의 그늘 밑에선 절대로 자식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보호라는 미명 하에 곁에 두면 결국 어린 나무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해 죽고 만다.

1211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

-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 '업글인간'이 등장했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는다.

1213 <빈곤의 여왕> (오자키 마사야)

- “정말 행복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돼 3억엔이 생겨도 지금의 생활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매일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1214 <같이 읽고 함께 살다> (장은수)

- 같이 읽기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 번 인생 상담을 주고받는 것이다. 책이 열어 준 입술에는 각자 살아온 삶의 무늬와 무게가 담겨 있어 마음의 두께를 더해 준다.

1216 <칭기와 주유소 씨름기담> (정세랑)

- 책이 게임이나 웹툰보다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독해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라면 문학의 감동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

1217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내는가> (로버트 포즌)

- 생산력을 키우는 3대 핵심 아이디어
- 1.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시간을 써라.
- 2. 가능한 한 빨리 최종결과물에 집중하라
- 3.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1219 <다시 오지 않는 것들> (최영미)

- "인생은 낙원이예요
- 우리들은 모두 낙원에 있으면서
-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지요"
- (...)
- 인생은 낙원이야.
- 싶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낙원.

1223 <도서관 지식문화사> (윤희윤)

- 문자는 눈의 확장이고, 책은 기억의 확장이며, 독서는 사유의 확장이라면, 도서관은 인간다운 삶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입수에 기여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창의력을 촉진하며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1224 <기파> (박해울)

- 아주 예전부터 인간들은 제 한 몸 편해지자고 신분을 나누고 노예를 만들었지. 그러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을 부리기 시작했어. 로봇이 상용화되고 인간들이 힘든 일은 로봇이 도맡게 되자, 인간은 너 나 할 것 없이 편한 삶을 누릴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

1226 <내일 말할 진실> (정은숙)

- 나는 아직도 불가해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받아들여기로 했다. 불행했던 어제와 불확실한 내일 사이에서 힘들고 아픈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1227 <모든 것이 되는 법> (에밀리 와프닉)

- 다양함, 당신을 유일하게 하는 것.
- 당신의 유일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내면이 이끄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뿐, 결국 당신의 다재다능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을 구축해야 한다.

1228 <불안 위에서 서핑하기> (하지현)

-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비용이에요. 고민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게 되면,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내 만족도가 훨씬 높아야만 해요. 고민에 들인 시간과 노력까지 보상받아야 하거든요.
- 그보다는 “절대 이것만은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최악의 선택을 걸러 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1230<취미로 직업을 삼다> (김욱)

- 칸트를 읽고, 사서삼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 세상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쓰는 등의 지적으로 충만한, 내적으로 행복한, 인간적으로 자랑스러운 노년의 지성이 넘치는 최후의 마무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고령화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우리에게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다.

1231 <100세 인생> (린다 그래튼)

- 장수라는 선물은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오랜 세월을 살다보면, 목적이 뚜렷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꾸기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 당신이 오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대성당을 건설할 것이다. 당신이 회계 분기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보기 흉한 쇼핑몰을 건설할 것이다.

총정리

- 당선 합격 계급
- 다크 호스
- 100세 인생